

[ 리빙 ]

‘칼질’의 별미... 특별한 혜택... 파격적 할인...

패밀리 레스토랑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조금은 요란한 실내 장식, 다소 산만해 보이는 직원들의 웃치림, 폭죽과 함께 울리는 생일 축하 노래소리...’

패밀리 레스토랑이 등장하기 전 ‘칼질’(?)은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나비 베타이를 맨 웨이터에게 극진한 서비스를 받는 ‘사치’를 의미했다. 하지만 최근엔 일반 레스토랑도 그나마 ‘구식’이 돼가고 있는 추세다.

서구 입맛에 길들여진 젊은이들이나 찾는 것으로 여겨지던 패밀리 레스토랑이 가족들의 외식장소로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친구나 연인을 뿐 아니라 신세대 가정과 아이들, 심지어는 60~70대 노인들까지 말 그대로 세대를 초월한 가족

미역국·김치볶음밥으로 ‘어르신’ 유혹

들의 대화장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주말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30분~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할 만큼 자리를 잡기 힘들다.

패밀리 레스토랑이 뜨는 이유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메뉴 개발 ▲각종 제휴 서비스로 인한 가격 할인혜택 ▲주5일제로 인한 외식 기회 증가 등이다. 외국에서 들어온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이 인기를 얻자 ‘토종’ 브랜드도 힘을 얻고 있다.

◇토종 입맛을 사로잡아라=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온 패밀리 레스토랑 업체가 가장 주력하는 것은 바로 메뉴 개발이다. 자칫 ‘느끼한 음식만 파는 곳’으로 분류돼버리면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가장 먼저 진출한 T.G.I. Friday's(TGIF)는 미역국도 함께 제공되는 ‘해물 김치볶음밥’(1만2천600원)을 내놓아 레스토랑을 찾는 ‘어르신’들을 배려했다.

‘아웃백스테이크’는 한국 진출이 1997년으로 ‘TGIF’보다 늦지만 현재 전국 매장 수 79개를 기록하면서 45개인 ‘TGIF’를 앞질렀다. ‘아웃백스테이크’의 경우 전체 메뉴 중 30%를 한국에서 개발한 것으로 채우고 있다. 특히 한국지사에서 개발한 사이드 요리 ‘통고구미’는 1999년부터 미국으로 역수출되고 있다.

국내 토종 브랜드 ‘빽스(VIPS)’는 샐러드바에 볶음밥류나 면류 등을 올려 한국인의 다양한 입맛을 공략하고 있다. 또 대표 메뉴인 ‘빽스 스테이크’(2만6천400원)는 소스에 불고기 양념의 맛을 내 고객의 요구에 부응했다.

광주·전남 지역 자체 브랜드들도 틈새 시장 공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베네치아’는 지난 1998년 광주시 동구 황금동에 첫 선을 보인 뒤 현재 점포 수가 14개로 꾸준히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베네치아’는 피자 개업 당시부터 주 메뉴였던 만큼 한국산 원료를 사용해 고객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

이태리식 패밀리 레스토랑을 표방하는 ‘그랑빠야또’도 광주가 본점이다. ‘그랑빠야또’의 버섯스프는 얇은 피자 반죽으로 그릇을 덮어 썩은 형태로 제공돼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5월 ‘아웃백’ 가면 최대 40% 할인

◇가격 할인 경쟁세=이같은 한국식 메뉴에도 불구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에 대한 선입견 가운데 하나는 비싼 가격이다. 하지만 요즈음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제값을 다주고 먹는 사람은 ‘바보’ 소리를 들을 정도로 다양한 가격 할인 혜택이 있다.

‘TGIF’에서는 SK·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멤버십 카드와 삼성카드, LG카드(빅패밀리·플래티늄), 현대 M카드, KB 5樂카드로 계산했을 경우 20%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아웃백스테이크’는 5월 한 달간 현대 M카드를 사용하는 고객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고 있는 모습(사진 위)과 생일을 맞이한 손님을 위해 직원들이 축하 이벤트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아웃백스테이크·TGIF 제공

에게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조흥은행 다음세이버 카드, LG빅패밀리 카드, 삼성페이백 서비스 카드 등은 20%를 할인받는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패밀리 레스토랑 이렇게 즐겨라!

패밀리 레스토랑이 기존의 일반 레스토랑과 다른 점은 매장 분위기가 자유롭다는 것과 다양한 메뉴가 있다는 것 등이다. 몇가지 기본적인 것만 알면 휘황찬란한 메뉴판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비싼 듯 보이는 메뉴지만 꼭꼭 숨어 있는 할인 혜택이나 무료 제공 서비스를 받아내는 재미도 쏠쏠하다.

패밀리 레스토랑의 메뉴는 크게 샐러드,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 디저트, 음료수 등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양이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코스별로 시킬 필요는 없다. 아이 둘을 데리고 간 4인 가족이라면 세트 메뉴 2개와 샐러드 한 접시, 어린이 메뉴 1개 정도를 시키면 충분하다. 세트 메뉴가 아니라면 메인 메뉴의 경우 양이

대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방문한 일행의 숫자에서 1을 뺀 만큼의 메뉴를 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부족하면 그 때 추가로 주문하면 된다. 패밀리 레스토랑의 음료수 값은 보통 4천원선으로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음료수는 무한 리필된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된다. 카드사의 할인 혜택 외에 각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했을 경우 나오는 무료 쿠폰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알뜰하게 패밀리 레스토랑을 즐길 수 있는 비결이다. 또한 새로운 메뉴가 나왔을 때 무료쿠폰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기 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은 기본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생활정보
주요뉴스
다시보기

다시보기
주요뉴스
다시보기

주요뉴스
다시보기

주요뉴스
다시보기

주요뉴스
다시보기

주요뉴스
다시보기

주요뉴스
다시보기

주요뉴스
다시보기

주요뉴스
다시보기

주요뉴스
다시보기

중고차 표고가 심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일 판매
(주)흥집동 자동차 매매상사
010-8427-9997